

평균 수위 3.6m 낮아져 홍수에 강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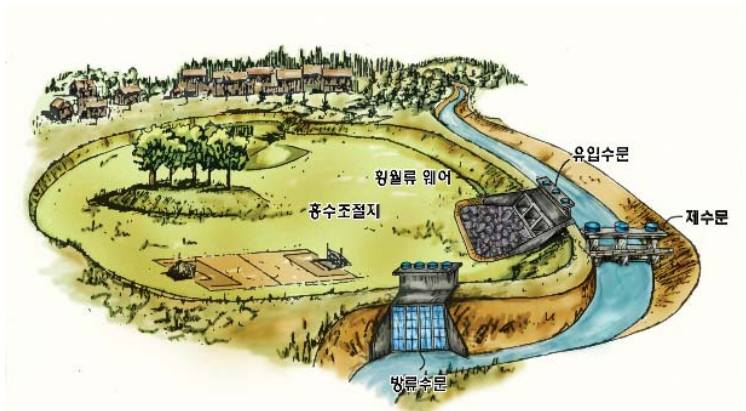
화순군 이양·청풍면 일원에 1198억원을 투입해 홍수조절용량 725만m³ 규모의 홍수조절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 곳은 평소에는 비어있다가 홍수 때에는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4> 홍수예방(治水)

물그릇 10배이상 확대...담양·화순에 대규모 홍수조절지 조성

환경단체 “준설은 홍수관리 제한적...중소하천 우선 정비해야”



홍수조절지 개념도

“1년에 한 두 차례는 꼭 물난리가 납니다. 음식점을 하는데 병장고를 들고 도망갈 수가 없어 2층에 올려놓고 사용합니다. 김치를 2년 이상 묵혀야 맛이 나거든요.”
나주시 다시면 구진포에서 ‘나룻터잡어’를 운영하는 김재석(49) 씨의 회상이다. 김 씨는 “1년에 한 두 차례는 꼭 집을 썼다. 집을 싸도 망가는 훈련은 제대로 됐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나주시 삼영동 김창원(59) 씨는 비만 오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 씨는 “강가에 사

는 사람들이 물에 예민하다. 저지대인 영산포(삼영동) 주민들은 강물이 불어나는 것만 보면 아예 잠을 못 잤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영산강 사업으로 이들의 고충이 해결됐다. 김창원 씨는 “영산포 주민들이 이제 발뺌하고 잘 수 있게 됐다”고 웃었다.
영산강 사업의 핵심 논리는 물그릇을 키워 홍수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중삼중의 대비책을 마련했다. 영산강 바닥을 깊어내고, 보를 새로 만들고, 제방을 쌓고, 강변저류지·홍수조절지를

만드는 것이다.

◇평균 수위 3.6m 낮아져=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준설과 제방 보강, 보 건설 등을 통해 영산강이 홍수에 더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준설로 영산강은 물그릇이 이전보다 10~14배 커졌다. 영산강 바닥에서 깊어 올린 토사는 서울 남산의 절반 크기인 2454만 2000m³에 달했다. 물그릇을 크게 키우면서 영산강 수위는 지난해에 비해 1.5~2.5m 낮아졌다.

영산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장마기간(6월21일~7월15일)동안 영산강 중류인 나주지점(나주대교)의 평균 수위는 -1.2m였다. 예년의 2.43m보다 무려 3.6m 낮은 수준이다.

올해 최고 수위도 지난 7월10일 2.73m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영산강 본류에서만 홍수주의보가 두차례 내려졌지만 올해는 한차례도 없었다.

이준호 영산강홍수통제소 연구사는 “준설 효과는 확연하다”며 “수위가 7m까지 오르면 홍수주의보가 내려지는데 올해 최고 수위는 2.73m 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에서는 준설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중단 광주전남공동행동은 “홍수관리를 대규모 준설에 의지할 경우 모래가 다시 퇴적되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며 “홍수 피해가 적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이나 중소하천을 우선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 만들고 제방 쌓고=제방을 새로 만들거나 보강하는 것도 홍수를 막기 위해서다.

익산국토청은 영산강 사업을 통해 대부분의 제방 경사면이 기존 1대2~3에서 1대4~5로 바뀌면서 제방 폭이 보강됐다고 밝혔다. 득마루 폭도 대부분 구간에서 1m 이상 넓어

졌다.
제방이 없어 집중 호우 때면 삼습적으로 침수피해를 겪었던 나주시 다시면 염색박물관 인근에는 다시제(1.2km)와 삼영제(1.57km) 등을 새로 만들고 있다.

죽산보와 승촌보도 홍수에 대응하고자 설치했다. 2개의 보를 건설해 맑은 물을 확보하는 한편 집중 호우 때는 수량을 조절해 영산강 유역 전체의 홍수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다.

오는 2012년까지 6189억원을 들여 하구둑과 영산호 방조제 배수갑문을 각각 240m와 330m 확장하고, 영산강과 영암호간 연락수로 140m 폭으로 크게 넓히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영산강에 집중되는 홍수량을 신속히 빼내고 탐수호간 수량을 분배해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이 사업

이 완료되면 영산강유역의 홍수처리 능력이 48% 증가돼 기상이변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양·화순에 홍수조절지 조성=담양과 화순에는 홍수조절지를 만들고, 나주 영산포에는 강변저류지를 조성한다.

홍수조절지는 평소에는 비어있다가 홍수 때에는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고 강변저류지는 반대로 물을 가둬 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빼는 역할을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담양군 담양읍과 월산면 일원에 1254억원을 들여 면적 1.05km², 홍수조절용량 375만m³ 규모의 홍수조절지를 만들고 있다. 화순군 이양면과 청풍면 일원에도 이보다 2배 이상 큰 홍수조절용량 725만m³ 규모의 홍수조절지를 조성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영산강 유역은 홍수조절능력을 갖춘 다목적댐이 없어 홍수에 취약하다”며 “홍수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해 홍수조절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홍수조절지는 특성상 홍수가 아닌 기간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이곳에 다양한 공공 편의시설과 환경친화적 수변공간을 조성해 주민 휴식처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사회와 함께 세계를 여는 교육중점대학이 되겠습니다.

2012 학년도 고구려대학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수시 : 2011년 10월 10일(월) - 12월 2일(금)
정시 : 2011년 12월 22일(목) - 2012년 3월 2일(금)

계열	학 과	계열	학 과
보 건	치위생과*	복 지	사회복지과(주/야)
	한약요양복지과*		사회복지상담과(주/야)
	보건의료행정과*		다문화복지과(주/야)
	뷰티미용과		보건복지과(주/야)
	토목조경학부		아동노인복지과(주/야)
공 업	신재생에너지과*	웰빙푸드	커피바리스타 전공
	유아교육과*		초콜릿티어 전공
	사회체육과		망고식스 디저트 카페과*
인 문 사 회	경찰부사관학부*	3년제 학과	경찰행정전공
	향토관광학부		부사관전공
	공예예술치료학부		항공문화전공
			호텔관광전공

* 3년제 학과 * 2012학년도 신설학과

인터넷 원서접수
<http://ipsi.kgrc.ac.kr>
www.jinhakapply.com
www.uwayapply.com

상담전화
080-330-7300
 TEL : 061-330-7321~7
 FAX : 061-330-7322

전문인육성 교육중점대학
고구려대학
KOGURYEO COLLEGE

520-713 전남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837-8